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18. 11. 9.(금)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항만정책과	담당 자	• 과장 변재영, 사무관 장진수 • ☎ (044)200-5910, 5911	
보도일시		2017년 11월 1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11.(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동북아 항만의 공동 발전 위해 한.중.일 한자리에

- 11.12~14 일본 시즈오카서 제19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1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 간 일본 시즈오카에서 개최되는 제19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동북아 항만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동북아 항만의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는 한·중·일 항만당국 및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연구과제의 추진성과를 논의하는 자리로, 2000년 이후 매년 3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철조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을 대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하태영 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오영민 박사 등 12명의 항만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항만국장회의(11.12~13)에서는 세계 물류 흐름 변화, 국제 환경규제 강화, 블록체인과 같은 해운물류기술 혁신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해운·항만시장 환경에 맞춰 각국의 중장기 항만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동북아 항만의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일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능력 연구, 3국 항만 관련 법률 비교, 항만환경 관리방안, 항만 관광객 유치 방안 등 4개 연구과제 성과를 공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항만국장회의에 이어 열리는 ‘동북아 항만심포지엄(11.14)’에서는 ‘항만 마을(미나토 타운)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항만에 문화, 관광, 축제 등을 접목시켜 지원하는 ‘미나토(항만) 오아시스’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 정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 기조에 따라 지방관리 항만에 대한 지자체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항만 육성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한·중·일은 세계 경제 규모의 23%,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 물류의 핵심”이라며, “3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항만관련 국제논의를 주도 하고, 동북아 항만의 상생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장진수 사무관(☎ 044-200-59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국장회의 개요

- (목적) 한중일 항만 당국 대표 정례회의를 통한 항만 발전방향 모색
 - 공동 관심사와 항만정책 추진 현황, 방향 및 주요 이슈 등 교환
 - 3국의 국책연구기관의 항만관련 공동 추진연구과제 결과 보고

- '95년 한·일 항만국장회의로 출발, '99년까지 한·일 국장회의 5회 개최
 - * '99년 회의에서 중국을 참여시켜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로 확대기로 결정
- '00~'17 : 3국이 순차적으로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18회 개최
 - * 제1회 회의(2000)에서 3국이 순차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

<연도별 동북아항만국장회의 개최현황>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개최지	동경	서울 / 속초	북경 / 상해	동경 / 니가타	서울 / 부산	북경 / 연태	동경 / 미야자키	서울 / 광양	북경 / 대련	동경 / 와카야마	제주	항저우	오타루	울산	난징	고베	인천	청도

□ 제18회 회의 개요

- 기간 : 2018. 11. 12.(월) ~ 11. 14.(수)
- 장소 : 일본 시즈오카 / ○ 주제 : '중장기 항만 정책'
- 참석자 : 이철조 부산항건설사무소장(대표), 항만정책과장 등 4명
- 행사 일정
 - 1일차 : 과장급 회의 / 2일차 : 항만국장회의 / 3일차 : 심포지엄 등

□ 주요 활동

- 삼국의 중장기 항만정책 공유
 - 우리나라는 지역산업 특화항만, 메가 부산항 프로젝트, 매력적이고 지속가능한 항만, 항만재개발, 기술기반 항만 등 추진전략 소개
- 한중일 공동연구과제 추진현황 점검
 - 터미널 하역능력 산정, 항만법률 비교 연구, 항만환경관리방안, 항만 관광객 유치방안 등 4개 공동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논의
 - * 삼국의 국책연구기관(한국은 KMI, KIOST)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국장회의에서 성과 발표